사진으로 보는 기름 유출 현장

2007년 12월 7일 아침. 태안반도 앞바다에서 닻을 내리고 있던 홍콩선적 초대형 유조선에 삼성중공업에서 운용하는 크레인 바지선 '삼성1호'가 예인선이 끊어진 상태에서 부유 중 충돌하면서 유조선으로부터 약 1만톤 가량의 원유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나라 연안에서 역대 최고 원유 유출사고로 기록될 이번사고는 어민 피해는 물론 환경파괴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국민들의 헌신적인 자원봉사로 상처는 점차 아물어 들고 있지만 그날의 참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수거되어 있는 폐기물 임시 보관장

트렉터를 이용하여 도로변으로 운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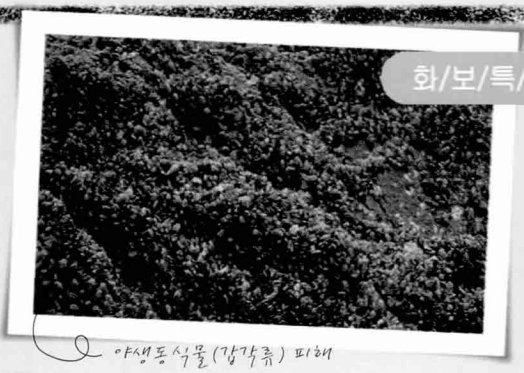
반출되는 폐기물량 계량

모래에 흡수된 원유수거 현장

사고현장 유류 제거 작업

현장에서 수거된 액상 폐기물 차량(탱크로리) 적재

야생동식물(패류) 피해


야생동식물(갑각류)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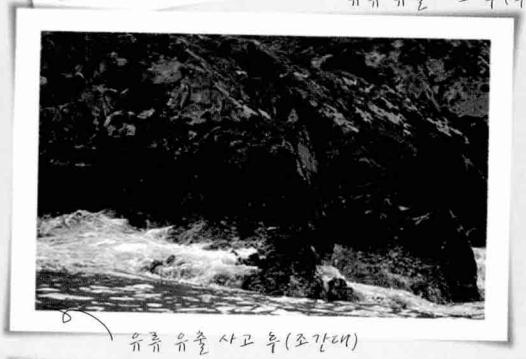
유류오염 피해 조사

유류오염 피해 조사

유류 유출 사고 전(구룰포)

유류 유출 사고 후(구룰포)

유류 유출 사고 전(조갈대)


유류 유출 사고 후(조갈대)

유류 유출 사고 전(해변)

유류 유출 사고 후(해변)